

# “세계 최초의 저술가는 아담”

## 짧은 여름밤의 책 이야기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얼마전 산행(山行)을 준비하면서 릴케의 《말테의 수기》와 《두이노의 비가》를 여행 가방 속에 넣었다. 그러나 며칠간 머문 Y씨의 산장에서 릴케는 한줄도 읽지 못했다. 오랜만에 릴케를 읽으며 우리들의 고전에 관한 짧은 글을 쓰겠다고 당초의 계획은 깨끗이 무산되었다.

1천2백미터 높이, 울창한 수림 속 개인 별장이 간간이 눈에 띄는 고원을 산책하며, 혹은 차를 몰아 산 속의 치즈와 빵 공장이며 카페를 찾는데 4, 5일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급한 글짓을 매꾸기 위해 전에 읽은 글을 정리한 이 글은 무더운 여름 밤의 이야기로 웃어 주기 바란다.

아담을 둘러싼 이 글은 헝가리의 저술가 이슈트반 《서적의 회극》(1982) 중 〈아담의 장서와 홍수전의 문학〉을 요약한 것으로 그 책은 독어판 이외에도 영어·러어의 번역판이 있다. 몽테뉴는 《에세이》에서 현학적이고 지나치게 박식한 사이비 학자를 혐오하고 있으나 《서적의 회극》을 읽으면서 ‘현학적’이라는 것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고,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또 글 쓰는 이란 현학적이 아닐 수 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마저 든다.

### 인류 최초의 지식인 아담

파리의 국립도서관에는 기원전 3350년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의 두루마리가 있다. 프랑스의 한 동양학자가 나일 강변 테베의 묘에서 발견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다. 그것이 정말로 세계 최고(最古)의 서적일까. 유럽의 17~18세기는 “아는 것이 힘이다”는 가치를 내걸고 백가쟁명, 무한담론에 전유럽이 흥분한 시대다. ‘아프리카의 토인도 인류에 속하는가’라는 주제를 내걸고 영국의 왕립협회가 3일간 심포지움을 벌였으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은 무엇인가의 주제를 호학(好學)의 인사들이 놓칠 까닭이 없다. 이 문제에 많은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몇몇은 “세계 최초의 서적은 아담이 저술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연구성과는 당연히 구체적인 고증에

최초의 저술가 아담은 12권을, 이브도 2권의 책을 썼음이 성서연구에서 밝혀졌다. 또 아담이 동물기축에서 피지를 만들고 잉크와 펜을 고안해 글을 썼다는 것도 밝혔다. 아담의 첫 문자는 감탄사 ‘오!’와 ‘우!’였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제일성이 낙원에서 사용한 말이라는 주장도 폈다.

의해 뒷받침되었다. 17~19세기의 유럽사람들은 책을 쓰기 위해 필자는 박식해야 한다고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생각한 듯하다. 당시는 백과전서가 지식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시대요, 박식이 최대의 미덕으로서 여겨졌던 시대다. 아담 논의의 첫번째 주제도 당연히 그의 학식에 관한 문제였다. 많은 토론 끝에 아담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인류 최초의 만능 지식인이었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지식인 아담은 문법학자요 철학자·천문학자·법학자임에 틀림없으나 정치적 ‘음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한 토론자로부터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그러자 《역사 비평 사전》의 저자인 철학자 벨은 솔로몬왕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논파하였다. 열띤 토론은, 그 무한한 학식을 아담은 어떻게 자손들에게 전했을까 하는 의제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냉철한 아담학자들은 아담이 학교를 세웠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담 자신이 자기 집에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신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권위 있는 교수들이 도출한 것으로 그들의 아담학(學)은 물론 대학에서도 강의되었으며 또 그에 관한 여러 연구문헌이 17세기 말에서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간행되었다.

**아담은 어떤 언어로 저술하였을까**  
최초의 저술가 아담은 12권을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재색을 겸비



테베 신전 벽면에 인물상과 함께 새겨진 옛 이집트의 ‘성스러운 문자’ (《문자의 이해》(시공사) 중에서).

한 그의 처 이브도 2권의 책을 썼음이 구약성서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ABC의 서(書)》, 《신의 계시서》, 《창조된 생물에 관한 서》, 《아담가(家)의 족보》, 《아담의 속죄서》 등 그 저작명도 교수들의 힘겨운 연찬 끝에 밝혀졌다. 신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 부부의 문제(文才)가 뛰어났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나 둘째 아들 아벨도 재능을 이어받아 생물의 생태와 약효에 관한 책을 썼다니 후세를 위해서도 경사스럽다고 할까. 그러면 아담은 어떤 언어로 기술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도 아담의 전기학자들은 훌륭하게 답하여 준다. 즉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 내부 한쪽 구석에서 사람 모습이 새겨진 몇개의 기둥이 발견되었다. 그 하나는 아담을 묘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려진 바로 밑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져 있다. “아담, 모든 학문의 발견자” 그리고 “이것이 고대의 낙원에서 사용된 말의 문자이다”라는 알파벳도 새겨져 있었다. 아담의 신봉자들에게 있어 이 발견 이상의 기쁨이 또 있었을까. 이 문자 기록이야말로 그들의 논의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증한 셈이니 말이다. 그들은 그 문자를 베껴 공표하였다. 이탈리아·영국 그리고 독일의 학자가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또 아담이 동물

기축에서 피지(皮紙)를 만들고 잉크와 펜을 고안, 글을 썼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냈다. 학자의 지적 관심이란 끝이 없는 법. 누가 감히 현학적이랄 할까. 에리쿠스라는 학자는 아담은 어떻게 ‘문자’를 생각해 냈으며, 그리고 고대 언어의 기본적 요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문제를 해명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류 최초의 문자는 ‘오’였다. 아담이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외계의 아름다움에 경악하며 ‘오!’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생겨난 문자는 ‘우’이다. 아담이 이브와 마주쳤을 때 그는 곧바로 생애의 동반자가 될 그녀의 뉘새를 말고 ‘우!’하고 발음하였다는 것이다. 인류사상 최초의 말은 ‘오!’와 ‘우!’의 감탄사였다. 다음의 난제는 아담이 ‘어떤 언어로 글을 썼을까’의 문제다. 이에 관해 성서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더욱 논의가 분분하고 저작물이 쏟아져나올 수밖에. 가장 믿음직한 원문을 얻어 승리의 영광을 이룬 것은 히브리어였다. 그러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브라운도 포함된 신중파는 태고적 조상들의 언어를 밝히는 방법은 실험에 의한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의 제일성이 곧 “아담의 낙원에서 사용한 말일 것이다”고 과학적인 주장을 폈다. 쾨페리는 학자는 또 하나의 견해를 발표하여 아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즉

# 책과 ○대리

박 시백

그에 따르면 낙원에서 주(主)는 스웨덴어로 말을 걸고, 아담은 덴마크어로 답하고, 뱀은 프랑스어로 이브를 유혹하였다는 학설이다. 이 저작에 대해 프랑수아 페노는 감언에 능숙한 프랑스의 국민성으로 보아 뱀의 말만은 근거가 있노라고 동의하였다.

낙원의 언어에 관한 논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피할 수 없었다. 하세라는 독일 학자는 1799년 《프로이센은 호박(琥珀)의 나라, 고대인의 낙원, 인류의 고향임은 성서 및 그리스-로마의 저술가들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증명된 것》이라는 길고 긴 서명(書名)의 책(당시에는 이처럼 장문의 서명이 적지 않았다)을 출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아담일가는 프로이센 옛 땅의 원주민이다. 인류 최초의 가문이 낙원에서 독일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민족주의적 독일 학자들이 심심치 않게 써먹는 호제(好題)였다. 그에 대해 프랑스의 어느 작가도 뒤질세라 “그럴 법도 하다.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응수하였다.

바벨탑은 수많은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벨기에의 어느 학자에 의하면, 탑내 극히 적은 공통어 중에 ‘배낭’이라는 낱말이 있어 탑이 무너지는 이수라장 속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sakkos’, 라틴 사람들은 ‘SACCUS’, 고트계는 ‘SAKK’ 독일인의 조상들은 ‘SAKK’, 영국·덴마크·브라만인의 조상들은 ‘SACK’, 프랑스 사람들은 ‘SAC’, 이탈리아 사람들은 ‘SACCO’, 스페인계는 ‘SACO’, 히브리어와 터키계는 ‘SAK’ 라고 부르짖으며 ‘배낭’을 메고 뿔뿔이 도망쳤다고 한다.

## 성서에 나타난 포도주 이야기

아담과 아담학에 이어 이야기를 성서와 성서학으로 옮겨보자. 성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교 세계 최대의 경전이요 고전이다. 그러므로 성서학 또한 최대 최고의 마이크로학(學)으로서 그 연구는 문자 그대로 미세하기 그지없어 모든 행(行), 모든 문자에 이르기까지 해석되고 해체되었다. 성서에는 ‘문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 테마를 들고 몇해 동안 씨름하는

학자가 여럿 나타났다. 언어(성서는 약 120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와 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으나 19세기 초 한 영국 국교회의 신학자가 영어의 공용 성서를 사용하여 이론 연구가 그런 대로 매듭을 지었다.

그에 따르면 구약성서에는 서(書) 39, 장 929, 절 2만3214, 단어 59만3493, 문자 272만8100이고, 한편 신약성서는 서 27, 장 260, 절 7959, 단어 18만1253, 문자가 83만8380이 된다. ‘and’ 라는 단어는 구약에 3만5543회, 신약에 1만684회 ‘Jehovah’는 6855회, ‘The hord’는 1855회 나온다.

성서에 나타난 음식물에 관한 연구도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나는 포도의 나무, 그대들은 그 가지이다”(요한 15·5)라고 그리스도가 말한 까닭인지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많다. 구약에서도 포도나무 포도원이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홍수에서 해방되어 지상으로 돌아온 노아가 제일 먼저 만든 작물도 포도였다. 포도는 풍요와 믿음의 상징이니, 바로 포도주로 이어졌다.

“노아는 농부가 최고 포도밭을 만들기 시작한 바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천막 속에서 벌거벗고 있었다.” 성서만큼 포도주를 비롯하여 술에 관한 서술이 많은 서적도 없다고 한다. 구약만 해도 포도주 및 술에 관한 기술이 약 5백개 정도 있다고 한다. 마틴 루터가 말한 바 “포도주 속에 진리가 있어”서 그러할까. 남녀의 사랑을 찬미한 구약의 〈아가(雅歌)〉에서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찬미된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좋아...”

이런 노래가 여러번 되풀이된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 잔은 그대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로써 이루어지는 새 계약이다”고 말한 이후 모든 지역에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마지막 하나, 짤막한 이야기. 18세기 초에 씌어진 어느 논문에는 “성서를 암기한 55인”의 이름이 열거되었다고 한다. ◆

